Q 유엔군의 강력한 공격 앞에 선 중공군은?

A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3차 공세 직후 서부전선에서 위력수색작전을 펼치고 동부전선에서도 공산군의 제2전선 게릴라부대를 차단 소탕함으로써 반격작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어서 중하게 한강 남안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한강으로의 재진출

미 제8군 정보참모는 중공군 제13병단의 주력이 한강과 수원 - 여주 사이에 있다고 사령관에게 보고하였으나, 항공정찰에서는 아직 대규모의 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최근 이 지역에서 실시된 수색작전에서도 적의 조직적인 방어활동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적정이 이처럼 모호하자 제8군사령관은 한강이남 지역에서 종심 깊게 강력한 위력수색작전을 실시할 목적으로 ‘ 선더볼트 작전(Opeation Thunderbolt)’ 즉 번개작전이라고 명명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작전은 신속하고 종심 깊이 진출하는 강력한 위력수색작전이었다.

이 계획에는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전차로 증강된 미군 1개 사단과 군단장의 판단에 따라 국군 1개 연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한강까지 수색작전을 펼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작전은 중공군이 참전한 이후 계속 후

‘ 평화의 수호자 라고 쓰인 포탄을 장전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

퇴작전을 거듭해 오던 유엔군이 재반격으로 이전하는 전환점이 된 작전이었다.

제8군사령관은 작전부대간의 연결을 유지하고 공격부대의 안전한 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단지역 전방에 8㎞ 간격으로 5개의 작전통제선을 설정하였고, 통제선의 통과는 군단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작전부대에 충분한 화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 해 · 공군이 최대한 지원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작전에 앞서 적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정찰기에 동승하여 2시간 동안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의 전방 32㎞까지 항공정찰을 실시하였다. 정찰 결과 한강 이남에는 대규모의 공산군 병력은 관측되지 않았으므로, 사령관은 작전부대가 쉽게 이 지역을 확보할 것으로 확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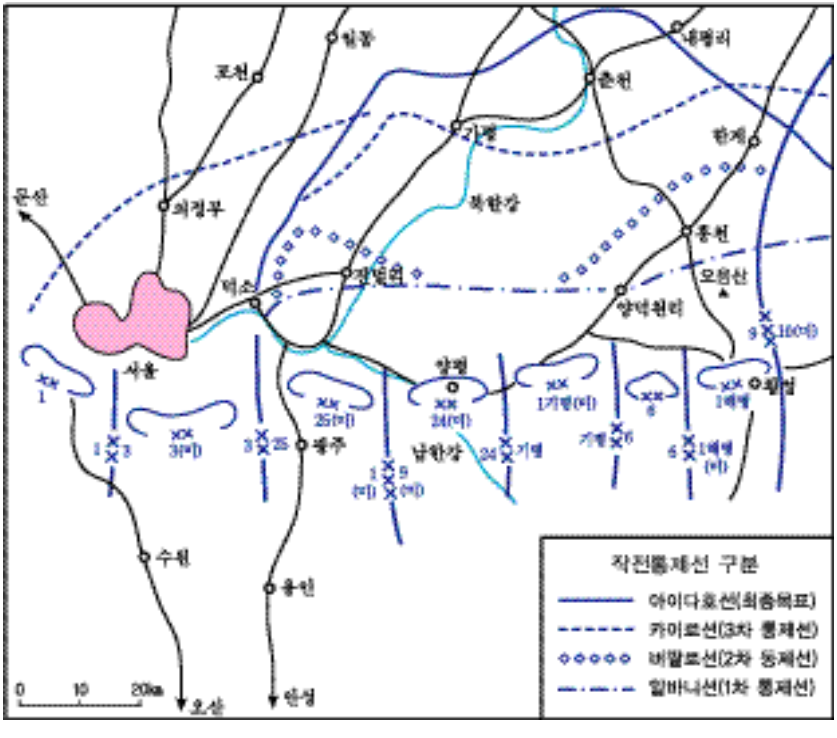
이에 각 군단의 공격제대는 최종목표인 한강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이미 수색이 완료된 서해안 - 오산 - 여주를 연하는 공격개시선을 점령하였다.

유엔군의 작전방침

국군과 유엔군은 작전계획에 따라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중공군의 공세를 분쇄하고 격멸작전을 벌여 1951년 3월 초에는 한강 남안 - 횡성 - 강릉을 잇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아군은 일직선으로 연결된 방어선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중공군의 개입으로 야기된 패전의식에서 벗어나 서울의 재탈환은 물론 38도선의 진출도 목전에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부는 현 전선의 중앙지역에 대 돌파구를 형성,

절단(리퍼)작전 작전통제선



일단 적의 전선을 양단하여 서부의 중공군과 동부의 인민군으로 분리시킨 다음, 남쪽에서의 정면공격과 동측방에서의 측면공격으로 서울을 양익 포위한다는 작전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번 작전을 전선 절단과 분리한다는 작전목적을 고려하여 ‘ 절단작전(Operation Ripper) ’이라는 작전명을 붙였다. 그리고 사령관은 유엔군이 우세한 포병, 전차와 공군 화력으로 먼저 상대의 진지에 집중적인 포격을 실시한 후 공격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제8군은 이번 절단작전에는 전 군단이 참여하되 중부의 미 제9군단이 주축을 이루어 서울 동쪽의 덕소 - 가평 - 춘천북방 - 한계를 연하는 목표선까지 진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적을 양단함은 물론 적의 병력과 보급물자의 비축 장소로 판단되는 홍천과 춘천을 점령하여 동측으로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압력을 가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중공군의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이번 작전에서는 단계적이며 부대간의 상호협조가 대단히 중요시 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작전의 세부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전방지역의 보급물자인 식량, 유류 및 탄약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작전 개시일의 확정을 일단 보류하고 있었다. 유엔군의 물자가 부족하게 된

북한군 진지를 향하여 사격을 하고 있는 유엔군 전차부대

데는 공산군의 2월 공세를 격퇴하는데 많은 보급품이 소모되었기 때문이었다.

제8군은 유류 보급을 마지막으로 5일간 비축물자의 확보를 완료했으며, 지형이 험준하여 진출이 지연되었던 미 제9, 제10군단의 일부 부대들도 진출을 완료하였다.

생각해 봅시다!!

1. 1·4후퇴 이후 아군은 어떤 상황에 봉착하였는가?
2. 유엔군이 중공군 공세를 꺾은 요인은 무엇인가?